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일본, '전(췌)게놈 분석 실행계획' 추진 본격화

CONTENTS

01

포커스

일본, '전(全)게놈 분석 실행계획' 추진 본격화 1

02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Bristol Myers, 건선 치료 신약 Sotyktu FDA 승인 획득 4

미국 NIIMBL, 1,58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 발표 4

독일 Siemens Healthineers, 뇌동맥류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완료 5

WHO/유럽, 자궁경부암 퇴치 로드맵 승인 촉구 5

유럽 CHMP, RSV 감염증 예방항체 EU 허가 권고 6

아시아·태평양, 화장품 산업의 주요 디지털 개발 동향 6

일본, '인간 게놈 데이터 분석 5분 완료'에 도전 7

일본 Sony, 원외처방 보청기기 시장에 진출 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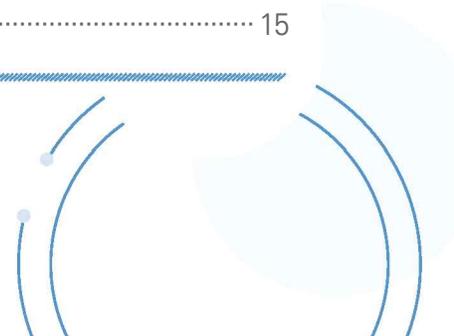
의료서비스

미국 행정부, COVID-19와 원숭이두창 관련 대규모 예산안 요구	8
미국 CMS, 연방가격 투명성 법규 강화	8
스위스 Eram Clinic, 부유한 고객 대상 클리닉 개원 예정	9
유럽 EC, 유럽케어전략 발표	9
중국, COVID-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발생 대응체제 구축	10
인도, 의료관광 선호지역으로 부상	10
태국, 통합의학을 활용하여 의료허브를 목표	11
WHO, COVID-19 종식이 가까워짐을 언급	11

0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CVC, 일차진료 서비스 확대에 파급효과가 클 전망	12
미국, COVID-19 기간동안 RPM 사용 급증	12
유럽과 중앙아시아, 디지털 헬스 실행계획을 채택	13
일본, AI 기반 인플루엔자 진단에 최초로 의료보험 적용	13
일본, 10월 이전 '의료DX추진본부' 발족	14
인도 Qure.ai, 의료 영상용 AI 혁신 연구소 출범	14
인도네시아, 의료기관에게 EMR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	15
의료산업, '22년 디지털 마케팅 동향 분석	15





일본, '전(全)게놈 분석 실행계획' 추진 본격화

후생노동성이 '22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은 모든 게놈 정보를 분석해 암이나 난치병의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22년 초 시작한 암 환자 대상 임상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동 계획은 게놈 분석 결과가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활용, 진단기술 연구개발에 대응하는 포럼 구축을 산업계에 요구하고 있으며 난치성 암, 희소암, 소아암, 유전성암 등 전게놈 분석으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민간의 힘만으로는 연구나 신약개발이 곤란한 암 종류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1] 신약개발의 중심으로 '19년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

■ 일본은 전게놈 분석을 위해 '19년 12월 암과 난치병 영역의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을 책정

- '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2020'은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개별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관학 관계자가 폭넓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고 지적
- '21년에는 기존의 관련 검토회를 정리하고 후생노동성 후생과학심의회 과학기술부회 산하에 '전게놈 분석 등의 추진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설치
- 동 전문위원회는 '21년 6월 앞서 '19년 책정한 실행계획(제1판)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대응하면서 '21년과 '22년에 실시할 사항을 정리한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 로드맵 2021'을 책정
- 전세계적으로 전게놈 정보 등을 활용한 연구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위원회는 전게놈 분석 등을 착실하게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 2022' 책정을 결정
- 각료회의가 '22년 6월 결정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2022'는 '암·난치병에 관한 신약개발 추진 등을 위해 임상정보와 전게놈 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연계하는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그 이용·활용에 관계된 환경을 조속하게 정비한다'고 규정
- 이에 따라 본 실행계획은 '22년부터 5년을 대상기간으로 본 사업 대상 환자 및 실시체제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한편 환자환원(患者還元: 임상연구에 참가한 환자에게 정보 제공) 및 이용·활용 등에 관한 운영방침 및 윤리적, 법적, 사회적 과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암의 원인이 유전자 이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후 유전자 연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전게놈 분석은 암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의 중심에 위치

- 전게놈 분석은 개개인의 치료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를 제공하는 암 의료 발전과 개별화 의료 추진 등을 목적으로 실시

- 또한 난치병의 전게놈 분석은 병의 조기발견,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 환자에게 보다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
- 기존의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제1판)'은 5년 생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난치성 암, 희귀 유전자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 희귀암(소아암 포함), 유전성 암의 전게놈 분석 등을 실시

■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 실적 및 '22년도 분석 예정 ■

영역		분석 실적		분석 예정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암	난치성 암 백혈병, 식도암, 간암, 담도/췌장암, 폐암, 난소암)	약 550증례 - 췌장암, 백혈병, 육종	생존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환원 가능한, 보존 검체를 가진 약 9,900증례 - 혈액, 소화기, 부인과, 호흡기, 희귀암, 소아암 영역 (이 가운데 신규 환자 600증례)	신규환자 2,000증례
	희귀암 (소아암 포함)			
	유전성 암 (소아암 포함)	약 3,250 증례		
난치병	- 단일 유전자성 질환 - 다인자(多因子)질환 - 진단 곤란한 질병	약 2,500 증례 (700증례: 당초 예산, 1,800증례: R2조정비)	약 3,000증례 (800증례: 당초 예산, 2,200증례: R3조정비)	신규환자 약 2,500증례 (150증례: 당초 예산, 2,000증례: R4조정비, 305증례: R3보정예산)

- 지금까지의 분석 실적 사례를 보면, 임상소견이나 기존의 유전학적 검사로 난치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는 가운데 진단에 이르지 못한 환자의 일부는 연구에서 전엑손(Exon) 분석 및 전게놈 분석을 통해 질환을 특정한 경우도 발생

[2] '22년부터 시작되는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의 개요

■ '22년도 전게놈 분석 실시체제는 '전게놈 분석 추진에 관한 전문위원회'가 '전게놈 분석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분석 실시상황을 평가·검증하고 방침 결정 및 필요한 지시를 실시

- 지금까지 선행 분석은 분석 결과를 조기에 임상진료에 도입하는 새로운 개별화 의료를 추진
- 향후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암·난치병 극복을 목표로 축적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및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실행계획은 전게놈 분석 등의 결과를 연구 및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
- 그동안 전게놈 분석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전게놈 분석 대상 환자는 기존 의료에서는 진단이 곤란하거나 완치 가능성은 낮지만 전게놈 분석 및 멀티 오믹스 분석 등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진단·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로 규정
- 전게놈 분석 결과를 환자에게 적절하게 환원하기 위해 환자환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게놈

분석에 관한 전문 인재, 검체 보관 및 관리체제,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ELSI) 대응, 고도의 진료기능, 임상시험 실시 체제 등을 구축

『전계능 분석 실행계획 2022』(案)

항목	암 영역	난치병 영역
대상 환자	- 원칙적으로 △수술, 생검, 채혈(혈액종양)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검체 확보 가능 △수술 등으로는 원치 가능성이 낮은 난치성 암 환자 △분석 개시 당시 생존해 있고 향후 치료 제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 가운데 충분한 설명 후, 새롭게 동의를 얻은 환자가 대상	- 난치병은 단일 유전자성 질환, 다인자성 질환, 진단이 곤란한 질환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질환 특성에 따라 성과를 기대하기 용이한 증례를 대상으로 함
환자 환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환자환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전문위원회가 매년 1회 새롭게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심사 및 승인을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을 이듬해부터 환자 환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으로 추가하고 환자환원을 하는 의료기관의 체제, 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매년 1회 전문위원회가 실시 (환자환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주요 요건) - △암게놈 의료 중심거점 병원 또는 암게놈 의료거점 병원 △ 암게놈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근무하며 환자에게 환원을 할 수 있는 진료체제 정비 △암게놈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 전계능 분석을 포함한 필수 연수를 실시해 게놈 리더에게 향상을 도모 △전계능 분석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체제 정비	- '21년에는 난치병 전계능 실증사업에서 난치병 게놈에 관한 전문가가 재직하고 게놈 정보 취급 및 난치병 진단·치료에서 거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5개 의료기관의 협력을 얻어, 환자환원 방법에 관한 실증을 실시 - '22년 이후에는 본 실증에 협력한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그동안 실시한 전계능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난치병의 전계능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
분석·데이터 센터	- 분석·데이터 센터는 임상정보의 활용·연구·신약개발 거점으로, 요구되는 주요 역할은 크게 4가지로 요약 △게놈 데이터 분석(게놈DB, 통일 파이프라인, 고도의 수평적 분석 △임상정보 수집(임상정보 수집 시스템, 보고서 작성 시스템) △데이터 이용·활용(데이터 공유 정책, 데이터 이활용 심사위원회, 데이터 이활용을 위한 연구지원시스템) △인재육성(게놈 분석 관련 인재육성, 임상정보 활용에 관련된 인재육성)	
검체 집중관리 센터	- 검체 관리시스템(검체집중관리센터) 및 보관·관리규정 - 신규 환자의 검체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일괄 관리하는 경우와 동일한 품질로 관리·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로 분양 가능한 체제가 정비된 경우에 한해 각 의료기관에서 보관도 가능 -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검체를 포함해 검체의 종류, 잔량, 동의(同意)의 종류별(산업계 단독 시료 분양 가능 여부) 등을 검체집중관리센터가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 추가 분석 가능한 검체를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22년도에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23년도 이후 본격적인 운용을 목표로 설정	
학계의 역할	- 전계능 분석으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게놈의료에 관련된 연구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계가 주체적으로 전계능 분석 등에 관련된 학술적 협의를 목표로 '22년 말까지 '아카데미아 포럼'을 구축할 예정 - 동 포럼에는 전계능 분석 등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폭넓은 데이터 이용·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영역별로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새롭게 지적된 변이 등에 대한 임상적 의의, 병리학적 의의를 협의하고 환자환원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등의 역할이 요구됨	
산업계의 역할	- 전계능 분석으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단기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산업계가 주체적으로 데이터 수집 과정을 포함해 본 사업에 계획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포럼'을 구축할 것이며, 동 포럼은 전계능 분석 등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진단기술 연구개발 추진이 목적	

[厚生労働省, 2022.08.03.; 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 2022.06.30.]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Bristol Myers, 건선 치료 신약 Sotyktu FDA 승인 획득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브리스톨 마이어(Bristol Myers)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경구용 건선치료제 ‘소틱투(Sotyktu)’를 승인했으며, 회사는 '22년 시장 출시를 모색

- 경쟁약품으로 애브비(Abbvie)의 ‘휴미라’(Humira), 암젠(Amgen)의 ‘엠브렐(Enbrel)’ 등 생물학제제 의약품이 있지만, Sotyktu는 정기적 자가주사를 비선호하는 환자들에게 마케팅할 것으로 예상
- Sotyktu는 환자들에게 생물학제제 의약품부터 우선 복용하지 않고 일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동 약품을 처방할 기회를 널리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
- 임상3상에서 암젠의 오테즈라(Otezla)와 위약을 비교 시험한 결과, Sotyktu가 중등도 및 중증 판상형 건선 환자들의 건선 면적 및 중증도 지수(PASI)와 건선평가점수(sPGA)에서 높은 점수를 달성
 - * Sotyktu는 과다 분비 시 건선의 특징인 발진과 가려움을 일으키는 TYK2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그 효능을 발휘
- 안전성 검사를 결점 없이 통과함에 따라 라벨에 유의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의사들의 처방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회사는 향후 여타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도 사용을 확대할 계획

[Biopharma Dive, 2022.09.10.; Medical News Today, 2022.09.10.]

미국 NIIMBL, 1,58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 발표

■ 미국 바이오의약품제조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Innovation in Manufacturing Biopharmaceuticals, NIIMBL)는 14개의 새로운 바이오의약품 제조 프로젝트에 1,580만 달러 자금 지원 발표

- * NIIMBL은 바이오제약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개발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의 바이오제약 제조 인력을 교육 및 훈련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민간 파트너십
- 프로젝트콜(Project Call) 5.2에는 바이오제약 제조 산업 내에서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인력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
- 현재까지 NIIMBL은 연구소가 출범한 '17년부터 ‘Project Call’ 프로세스를 통해 약 100개의 기술, 인력 개발 및 글로벌 건강 기금 프로젝트에 총 9,500만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액을 지원
- NIIMBL 커뮤니티는 학계, 산업계, 정부 및 비영리 조직의 2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발전시키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

[NIIMBL, 2022.08.09.; NIST, 2022.08.10.]

독일 Simens Healthineers, 뇌동맥류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완료

■ 독일 지멘스(Siemens)사의 헬스케어 부문 자회사인 지멘스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사의 혈관 수술 로봇 사업부인 코린더스(Corindus)의 CorPath GRX 신경혈관 수술 지원 시스템이 뇌동맥류 수술의 94%를 의사의 개입 없이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결과를 발표

- Corindus의 CorPath GRX 신경혈관 수술 지원 시스템은 다리나 뇌의 혈관에 원격으로 미세 카테터를 삽입하고 작동하는 기계 부분과 영상 촬영 기능을 결합한 수술 로봇으로, 동맥류 등의 병변이 있는 부위에 대한 정밀 수술이 가능

* Siemens Healthineers는 '19년 11억 달러에 의료로봇 스타트업인 Corindus 인수한 바 있음

- 동맥류 제거 수술 환자의 64%는 이 로봇 시스템만으로 수술을 완료했으며, 78%는 수술 이후의 의학적 관점에서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2%는 낮은 수준의 신경학적 장애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일상 생활이 가능
- 특히 새로운 치료법이 표준 치료법과 얼마나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비열등성 임상시험 연구(the noninferiority study) 결과에 따르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의 손상을 피하는 안전기준의 95.7%를 충족

[Fierce Biotech, 2022.09.12.; +Mass Device, 2022.09.12.]

WHO/유럽, 자궁경부암 퇴치 로드맵 승인 촉구

■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 사무국(WHO/Europe)은 유럽에서 중앙 아시아에 이르는 53개 회원국에 이 지역의 공공 보건의로 문제인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 퇴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승인할 것을 촉구

- WHO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예방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에서 매년 66,000명 이상의 환자가 자궁경부암으로 새로 진단되고 30,000명 이상이 사망
- WHO 유럽 지역 2022-2030에서 공공 보건의로 문제인 자궁경부암 근절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은 자궁경부암 제거를 위한 글로벌 전략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 달성과 회원국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핵심 원칙, 전략적 변화 및 우선순위 조치 등을 제시
- 특히 15세까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으로 여아의 90%를 완전히 예방접종하고, 35세까지 고성능 검사를 사용하여 여성의 70%를 선별하고, 45세까지 여성의 90%를 선별하는 것을 목표

*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Human papiloma virus infection, HPV)은 사마귀를 일으키는 유두종 바이러스 군의 일종이며, 고위험 유형은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음경암 등의 생식기 암을 유발

[PMLiVE, 2022.09.15.; WHO, 2022.09.12.]

유럽 CHMP, RSV 감염증 예방항체 EU 허가 권고

■ 프랑스 사노피(Sanofi)사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사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으로부터 신생아와 유아를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장기지속형 항체인 니르세미맵(nirsevimab)에 대한 EU 승인이 임박

- 유럽의약품청(EMA)의 인건의약품위원회인 약물사용자문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는 RSV에 의해 발생하는 하기도 감염증을 예방하는 용도로 베이포터스(Beyfortus)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권고
- AstraZeneca와 Sanofi에 따르면, 승인될 경우 Beyfortus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유아 인구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단일 용량, 수동 예방 접종이 될 예정
- 글로벌 제약업체인 화이자(Pfizer)는 현재 임산부가 사용할 RSV 백신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신생아와 유아에게 보호를 이전할 예정이며, 내년에 3상 결과가 나올 예정
- '30년까지 연간 매출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RSV로 인한 공공 보건의료 위기의 규모 때문이며, 전 세계적으로 RSV 감염은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입원과 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거의 6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6개월 미만의 유아 사망자의 약 절반을 차지

[Pharmaphorum, 2022.09.16.; Fierce Pharma, 2022.09.16.]

아시아·태평양, 화장품 산업의 주요 디지털 개발 동향

■ 글로벌 화장품 소매업체 피앤지(P&G), 미얀마 기반의 가바(Gabar), 홍콩 기반의 사사(Sa Sa)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화장품 산업 주자들이 디지털 개발에 성공

- (P&G) 피앤지는 새로운 가상 쇼핑 경험 공간 '쇼미마이홈(Show Me My Home)'을 출시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지역의 매출이 20배 상승
- (Gabar) 미얀마 기반의 '가바' 설립자들은 조향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얀마를 대표하는 향수 제작에 성공
- (Sa Sa) 홍콩 기반의 화장품 소매업체 '사사'는 국제 온라인 스토어를 개편해 홍콩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 북미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 중
- (K-beauty) '올리브영'은 중기 세일 기간에 글로벌 주문이 125% 증가했으며, 해외 소비자들의 구입한 물품 수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입 물품 수를 능가
- (TikTok Shop) 틱톡샵이 서남아시아로 진출함으로써 소셜커머스의 역대 성장을 촉진하고 역대 화장품 브랜드를 보다 넓은 층의 국제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것으로 기대

[Cosmetic design asia, 2022.08.11.; CISION, 2022.07.20.]

일본, ‘인간 게놈 데이터 분석 5분 완료’에 도전

■ 일본 스타트업 미타테젠포테크니카(Mitate Zepto Technica)社は 게놈 분석을 고속화하는 액셀러레이터를 개발 중이며, 이 제품이 실용화되면 한 사람의 게놈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50분에서 5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

- 게놈분석은 게놈의 추출, 데이터 분석 2단계로 진행되지만 추출은 5분 정도면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에 상당 시간이 걸리는데 한 사람의 게놈 분석은 기존의 고속장비를 이용해도 약 50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10명 정도 분석이 한계
- 일본은 '19년 6월부터 ‘암 유전자 패널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검사를 이용해 치료하는 ‘암 게놈 의료’가 가능한 병원은 233개가 있지만 검체를 채취해 진단하고 치료방법까지 결정할 수 있는 병원은 45개에 불과
- Mitate측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용 액셀러레이터를 개발해 한 사람의 게놈 데이터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5분으로, 시스템 도입 비용을 2,000만 엔에서 200만 엔으로 낮추고 하루 처리 가능한 피보험자 수를 10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 세계 게놈분석 시장은 COVID-19로 급성장하면서 2조 4,000억 엔~3조 엔 규모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인간게놈 분석 시장은 2조 4,000억 엔으로 즉, 현재 동 시장은 거의 인간게놈이 대상이며 인간게놈 분석장비 시장은 약 1,000억 엔~1,500억 엔 규모로 추산

[EE Times, 2022.08.25.; Science Portal, 2022.07.14.]

일본 Sony, 원외처방 보청기기 시장에 진출

■ 일본 소니(Sony)社は 덴마크에 본사를 둔 의료 음향기기 업체인 WS오디올로지(WS Audiology)社와 파트너십을 통해 처방전 없이 온라인 또는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원외처방(OTC) 보청기기 시장에 진출

- '22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경증 또는 중등도의 난청을 가진 약 3천만 명의 미국 성인의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더 많은 회사가 헬스케어 시장 진입이 가능
- FDA 규정은 '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기업의 보청기는 이르면 10월부터 매장과 약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베스트바이(Best Buy)의 경우 보청기 컬렉션을 확대할 예정
- 8월 FDA의 최종 규칙이 발표된 이후 이어고(Eargo), 지엔히어링(GN Hearing) 및 뉴히어라(Nuheara)와 같은 보청기 제조업체는 온라인 고객 또는 CVS, Walgreens 및 Best Buy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계획을 수립

[CNET, 2022.09.13.; Fierce Biotech, 2022.09.13.]



의료서비스

미국 행정부, COVID-19와 원숭이두창 관련 대규모 예산안 요구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3년 회계연도(FY23) 예산안에 COVID-19 대응 및 준비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 224억 달러와 원숭이두창(monkeypox) 백신, 테스트, 치료 및 국제 지원 목적으로 40억 달러 등 COVID-19와 원숭이두창과 관련된 2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포함하도록 의회에 요청

-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질병 관련 예산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대신, 백신 보급 등의 영역에서 비용을 줄여서 예산을 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의 COVID-19와 원숭이두창 관련 대규모 예산 투입이 물가변동을 자극할 수 있고, 과거의 팬데믹 관련 지출 내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
- 한편으로,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없으면 현재 진행하는 무료 COVID-19 백신 접종이 '23년 1월 이후에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고

[Fierce Healthcare, 2022.09.02.; The White House, 2022.04.07.]

미국 CMS, 연방가격 투명성 법규 강화

■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ter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 CMS)는 병원가격 투명성 규칙을 범한 아틀랜타 노스사이드 병원(Northside Hospital Atlanta) 등 2곳에 범칙금을 부과

* 병원가격투명성 규칙(Hospital Price Transparency Rule)은 '21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원들은 소비자 친화적인 포맷으로 온라인에 가격 고지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를 어길 시 CMS에서 범칙금을 부과

- 동 규칙은 가격 투명성을 통해 환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보다 평등하고 비용 효과적인 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단체 건강보험 업체는 네트워크 내 공급자 요율은 물론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허용 금액 및 청구금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강보험 구매자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알게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정보에 입각한 의료 선택 및 결정이 가능
- '23년 1월부터 지불자는 사람들이 비용 분담금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500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CMS는 구매 가능한 서비스 목록 300개를 제공하지 못한 아틀랜타 노스사이드병원과 체로키 노스사이드병원(Northside Hospital Cherokee)에 범칙금 110만 달러를 부과

[LaingBuisson, 2022.09.12.; Health Affairs, 2022.09.12.]

스위스 Eram Clinic, 부유한 고객 대상 클리닉 개원 예정

■ 구강, 안면, 미용 치료를 위한 클리닉인 스위스 이람클리닉(Eram Clinic)은 '22년 9월 20일에 취리히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고층 건물 중 하나인 유명한 Hochhaus zur Palme에서 세계 부유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개원할 예정

- 치과 관광 분야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 제안을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만 취리히에 새로 문을 여는 스위스 치과병원은 정반대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 왕족 등을 대상으로 유치 영업할 예정
- 이 클리닉은 스위스 기업가 부부인 Zahra Eram과 Riccardo Meili가 설립했으며, 취리히를 구강 안면 치료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고 고급 치과 치료 및 의료 미학을 추구하는 선도적인 연구소가 되는 것을 지향
- 종합 클리닉은 3개 층에 걸쳐 있으며 최첨단 치료 시설을 자랑하며 치과 보철물을 제조하기 위해 완전히 디지털화된 사내 치과 기공소를 운영
- 클리닉은 24시간 진료, 2개의 대기실, 여행 계획, 스위스에서의 체류 가이드, 개인 요리사의 음식 서비스, 아동 및 가족 돌보기, 소풍,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일반 의료 등을 포함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

[LaingBuisson, 2022.09.14.; The Telegraph, 2022.07.20.]

유럽 EC, 유럽케어전략 발표

■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향후 유럽 돌봄 전략 및 관련 제안에 대한 국가, 지역 및 지방 정부 조직의 입장을 종합한 유럽케어전략(European care strategy)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는 보고서를 통해 임기 5년 동안의 사전 입법 현황 및 다양한 주요 위원회가 취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약
- 수집된 정보는 광범위한 조직 및 재정적 책임을 수반하는 '케어' 부문에서 지방 및 지역 당국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제시
- 장기요양(Long-term care, LTC)과 관련하여 지방 당국은 자율성 상실을 방지하고 디지털 및 신기술의 사용과 기존 주택을 노인과 장애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주택 솔루션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장려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요양원과 병원에서 돌봄을 시행
- EU 27개국에서 장기요양 지출은 '19년 국내총생산(GDP)의 1.7%에서 '50년 GDP의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의 의료는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반면 LTC 서비스 지원은 사회 부문에서 제공

[European Parliament, 2022.09.06.]

중국, COVID-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발생 대응체제 구축

■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hina CDC)는 '22년 가을겨울 COVID-19와 인플루엔자(influenza)가 동시 발병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해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

* '22년 8월 기준, 중국의 COVID-19 일일 발병률은 약 2천 건에 달하며, 하루 100건 이상 발병하는 성(城)은 최소 10곳

- China CDC 주보 8월 5일 자에 따르면, 남부 지방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률이 높은 가운데 검출된 6개 인플루엔자 중 5개가 A형 인플루엔자의 하위 유형(H3N2)인 것으로 드러남
- 광둥, 장쑤, 길림, 헤이룽장 등을 포함한 다수의 성에서는 '22년 가을겨울에 인플루엔자가 최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
- 광둥, 쓰촨, 푸젠의 일부 지역에는 '22년 6월부터 대규모 독감 예방접종에 착수했으며, 하이난의 경우 7월 31일부터 중국 최초로 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아동용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제공
- 현재 중국은 인플루엔자와 COVID-19의 발생률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대중에게 적시에 예방책을 전달하고 병원 내 발열클리닉에서도 다양한 감염 환자 선별이 가능

[Global Times, 2022.08.11.; Forbes, 2022.08.20]

인도, 의료관광 선호지역으로 부상

■ 인도는 기술의 발전과 고도로 전문화된 의사에 힘입어 의료관광을 위한 선호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의 의료관광은 '21년에 90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인도는 최고의 의료 품질과 타국가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관광이 가능하며 인도 의료관광의 가치는 30억 달러로 추산된 '15년과 비교하면 '21년에는 3배가 증가한 9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
- 의료관광은 인도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으며, 지난 25년 동안 민간 병원이 최신 의료 기술과 새로운 치료법에 문을 열고 환자를 돕기 위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이웃 국가에 손을 내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
- 해외 환자들이 인도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첨단 의료 시설,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의사 및 저렴한 치료이며, 인도는 질병치료 외에도 웰빙을 위해 요가와 आयुर्वेद(Ayurveda) 서비스를 제공
- 의료관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도의 헬스 중심지인 첸나이(Chennai)시는 △인도의 암 치료비용이 미국의 약 10분의 1 정도의 저렴한 비용 △짧은 대기 기간 △높은 치료 품질 △영어 사용 등 언어의 편리성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45%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

[Times Now, 2022.08.14.; Times of India, 2022.09.09.]

태국, 통합의학을 활용하여 의료허브를 목표

■ 강력한 의료 및 웰니스 인프라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명성을 바탕으로 태국은 '세계 의료 및 웰니스 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추진

- '21년에 태국은 존홉킨스대학의 세계보건안보지수에서 전염병 대응 능력으로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으며, CEO World Magazine의 '21년 헬스케어 지수(Health Care Index 2021)에서 13위를 차지
- '21년 12월 기준으로 370개 이상의 병원 및 의료 시설 중 60개가 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의 인증을 받아 JCI 인증 의료시설 수 기준으로 세계 5위
- 재생 및 노화방지와학, 대체의학, 심장과학, 근골격계, 치과, 체외수정, 암 치료, 수술, 안과(백내장), 정밀의학을 포함한 의료 및 웰빙 서비스의 10개 영역의 의료관광 홍보를 촉진
- 타이 마사지와 중의약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법은 점점 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태국의 많은 병원은 치료와 예방 치료 사이의 간극을 메워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The Nation Thailand, 2022.09.05.; BioSpectrum, 2022.09.05.]

WHO, COVID-19 종식이 가까워짐을 언급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22년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COVID-19 주간 사망자 수가 '20년 3월 이후 최저로 급감하고 있어 팬데믹(pandemic)의 끝이 보인다고 발표

- 그러나 WHO는 결승선을 앞두고 세계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변종, 사망, 혼란 및 불확실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정부가 COVID-19 종식을 위해 취해야 하는 주요 조치를 요약한 6개의 짧은 정책 브리프를 발표
- 정책 개요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의 증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명을 구하고 의료시스템을 보호하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요약
-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문서에는 △대부분의 위험 그룹에 대한 예방접종 △SARS-CoV-2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테스트 및 시퀀싱(sequencing)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1차 의료시스템에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권장사항이 포함
- 또한, 당국에 공급, 장비 및 추가 의료 인력 확보를 포함하여 향후 급증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식별 및 해결하기 위한 의료종사자 교육, 고품질 정보 자료 작성 관련 조언도 포함

[UN News, 2022.09.14.; U.S. News, 2022.09.1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CVC, 일차진료 서비스 확대로 파급효과가 클 전망

- 미국 약국체인 CVC와 월그린즈(Walgreens), 아마존(Amazon) 등이 가정 의료서비스 및 일차진료에 보다 주력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공급업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

* 월마트(Walmart) 등 주요 소매업체가 치료의 연속선 안으로 보다 깊이 파고들게 됨에 따라 치료의 방법 및 장소, 지불자 및 지불 대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9월 초 CVC는 홈헬스케어 업체 '시그니파이 헬스(Signify Health)'를 80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건강보험·약품관리·소매약국·응급치료 등이 포함된 CVC의 수직적 통합 시스템에 가택치료를 추가
- 시그니파이 헬스측은 네트워크 내 1만여 명의 의사들이 미국 전역의 환자 250만여 명을 상대로 가택 헬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석 및 기술을 제공
- 또한 △(Walgreens) 가택치료 업체 케어센트릭스(CareCentrix)에 3억3천만 달러를 투자 △(Best Buy) RPM업체 커런트헬스(Current Health)에 4억 달러를 투자 △(Amazon) 일차치료 업체 원메디컬(One Medical)을 39억 달러에 매입 △(Walmart) 조지아, 일리노이 주 등에 대면진료소 20곳을 개소

[Fierce Healthcare, 2022.09.15.; CNBC, 2022.09.05.]

미국, COVID-19 기간동안 RPM 사용 급증

- AMA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미국 메디케어(Medicare) 의료보험 수혜자의 원격환자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RPM) 사용이 '20년 2월 등록자 100,000명당 91건에서 '21년 9월 등록자 100,000명당 594건으로 증가

-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반 RPM의 63.1%가 일차진료 임상외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심장내과 전문의가 19.7%,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4.1%를 제공
- RPM 케어에 대한 가장 흔한 일차진단은 RPM 서비스의 62.5%를 나타내는 고혈압이었으며, 당뇨병이 8.3%, 수면 장애가 3.9%, 고지혈증 또는 고콜레스테롤이 3.5%를 차지
- 수면 및 호흡 장애는 호흡기 전문의의 일반 RPM의 76.4%를 차지했으며, 전반적으로 일차진료 제공자의 고혈압 모니터링은 팬데믹 기간 동안 RPM 사용을 지배하여 서비스의 42.7%를 차지
- 위딩스(Withings)는 웨어러블, 체중계 및 수면 매트를 사용하여 자체 RPM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알리오(Alio)는 심박수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FDA 510(k) 승인을 획득

[MobiHealthNews, 2022.08.11.; Health Affairs, 2022.09.06.]

유럽과 중앙아시아, 디지털 헬스 실행계획을 채택

■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과 아시아 지역 53개 국가의 보건 장관과 대표자들은 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보건 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시민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디지털 헬스 실행계획(action plan)을 최초로 채택

- '22년 9월 12일에 개최된 WHO 유럽 지역 위원회 제72차 회의에 참여한 각국 장관과 대표자들은 지난 3년간 진행된 팬데믹 국면의 교훈을 구체화하고 보건의료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디지털 도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기반한 해법을 모색하는 실행계획을 승인
- 실행계획에는 '2020~2025 WHO 유럽 실무프로그램(WHO European Programme of Work 2020-2025, EPW)'의 실현, 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원격의료, 건강 데이터와 정보 시스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사용, 온라인에 확산되는 잘못된 의료 정보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09.13.]

일본, AI 기반 인플루엔자 진단에 최초로 의료보험 적용

■ 일본 의료기기 회사 아이리스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인두(咽喉) 내시경 시스템인 노도카(nodoca)를 이용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에 12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발표

- 이는 AI 탑재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공적 의료보험에서 신기능·신기술로 적용되는 일본 최초의 사례로, 아이리스는 4월말 AI탑재 의료기기인 nodoca의 제조·판매 승인을 취득
- Nodoca는 인두를 촬영한 영상과 문진정보를 AI로 분석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적 소견을 검출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을 보조
- 구체적으로는 내시경으로 촬영한 환자의 인두 사진을 바탕으로 체온 등의 데이터와 조합해 AI가 인플루엔자의 음성, 양성 여부를 단시간에 판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검사법과 비교해 침습성이 낮고 의료종사자의 2차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며 검사도 신속하게 마무리
- Nodoca의 AI알고리즘은 총 100개 의료기관, 1만 명 이상의 피험자의 협력을 얻어 수집됐으며 50만 장 이상의 영상 DB를 구축하고 이 DB를 활용해 AI를 개발한 후 '20년 임상시험을 실시
- 또한 AI분석에 적합한 인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전용 카메라를 독자적으로 설계·개발함으로써 구강내부와 인두를 선명하게 촬영
- Nodoca를 이용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의 보험점수(진료보수)는 305점(3,050엔)으로 현재 사용되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신속검사 키트를 이용한 진단과 동일한 점수

[PR Times, 2022.09.14.; ASCII, 2022.05.12.]

일본, 10월 이전 '의료DX추진본부' 발족

■ 일본 정부는 의료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오는 기시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료DX추진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며, 이르면 '26년 의료DX의 기반이 될 '전국 의료정보 플랫폼'도 창설한다는 방침

- 전국 의료기관이나 지자체가 전자진료차트, 진료보수명세서, 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공유해 환자가 최적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정비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
- COVID-19가 확대되던 시기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확진자 정보를 팩스로 교환하면서 전체적인 확진자 파악이 늦어지는 등 의료현장의 디지털화 지연의 폐해를 확인한 일본 정부는 6월 책정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서 동 추진본부 설치를 명시한 상태
-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7월 의료DX 담당 심사관 직책을 신설하고 향후 의료DX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정을 위한 준비팀을 마련해 플랫폼에 적용할 전자차트 규격 통일화 작업에 착수
- 또한 검진을 통한 MRI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의료기관들이 인터넷으로 교환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이 용이하도록 '23년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계획
- 현재 일본은 COVID-19와 관련해 의료기관 가동상황을 파악하는 'G-MIS', 의사가 진찰한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HER-SYS', '백신접종기록시스템(VRS)' 등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어 의료DX추진본부는 난립하는 이들 시스템 운용을 재검토하고 시스템을 통합·재편할 방침

[産經新聞, 2022.09.13.; Med IT Tech, 2022.06.09.]

인도 Qure.ai, 의료 영상용 AI 혁신 연구소 출범

■ '16년에 설립된 AI 기반 진단 이미지 분석 서비스 기업인 인도 큐어닷에이아이(Qure.ai)社は 로테르담 대학 의료센터의 에라스무스엠씨(Erasmus MC)와 협력하여 의료 영상용 AI 혁신 연구소를 출범

- 혁신 센터는 근골격계, 흉부 및 신경 질환의 이상을 감지하는 AI의 역할을 탐구할 예정이며 초기 프로그램은 3년 동안 운영되며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 상태에 대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한 이상 탐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
- Erasmus MC는 Qure의 AI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초기 연구 프로젝트는 근골격계 및 흉부 영상에 중점을 둘 예정
- 유럽 전역의 의료시스템은 전염병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 및 방사선 전문의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우며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AI를 채택하면 임상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비정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

[ITN, 2022.09.09.; Express Healthcare, 2022.09.08.]

인도네시아, 의료기관에게 EMR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

■ 인도네시아는 '22년 8월말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부령을 제정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기존의 서류 기반 물리적 의료기록에서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으로 전환할 것을 제도화

-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전자 의료 기록 의무화 보건부령은 의료 기술의 디지털 전환 실행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
- 이번에 발표한 보건부령은 인도네시아 국내 8,000여개의 주요 의료 기관이 보유한 의료 기록을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개발한 보건의료 디지털 플랫폼인 SATUSEHAT에 '22년 연말까지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
- 환자들은 자신들의 의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 기관들은 환자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EMR에 접근할 수 있으며, EMR 제도화는 인도네시아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일관된 진단 및 치료 결과의 열람이 가능해지며, 의료서비스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

[Healthcare IT News, 2022.09.15.; Open Gov, 2022.09.14.]

의료산업, '22년 디지털 마케팅 동향 분석

■ 영국 마케팅 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는 '22년 의료산업 디지털 마케팅 동향을 주제로 △의료 디지털 마케팅 발전 과정 △디지털 마케팅 추진 과정의 어려움 △디지털 마케팅 업그레이드 솔루션 및 관련 사례 △프로세스와 기술적 도구 등 주요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료 지식과 제품 정보를 얻는 소비 수요가 보편화됨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의사가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정부에서도 의료·의약·의료보험 등 연계를 추진하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확장을 위한 정책 마련
- 다만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발전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환자에 대한 접근 및 데이터 확보 어려움 △주요 데이터 부족에 따른 데이터 정확성 미비 △의료 분야만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B→HCP→P) 특징과 가치사슬의 제약으로 인해 업계의 추진 역량과 발전 단계는 부족한 상태
- 기업들은 그간 최종 수요자인 환자가 아닌 의료진(Healthcare professional)에 대한 인식·이해에 집중 △마케팅 결과와 ROI 등을 마케팅에 반영하기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 존재
- 따라서 △디지털화 플랫폼 및 마케팅 채널 등 탄탄한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마케팅 관리 프로세스 및 기술적 도구 마련 △데이터 분석 역량 및 업무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마케팅 각 단계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의료산업 디지털 마케팅 수준 제고 필요

[Ipsos, 2022.09.05.; 亿欧智库 2022.09.09.]